

# 나경원-박원순 양자대결 본격 돌입

### 서울시장 선거...수중보·무상급식 등 전방위 충돌

### 여론조사 우세 박원순 '굳히기' 對 나경원 '뒤집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야권 통합후보 간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두 후보는 양자대결 확정 후 첫날인 4일부터 주요 정책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필승결의와 함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고공전에 본격 돌입했다.

또 한나라당이 당내 최대 주주이자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사실상 이끌어내며 단일화 바람 차단에 나서자 범야권은 통합선대위 발족을 서두르며 단일화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공개된 초반 여론조사 결과는 박 후보가 47.1%의 지지율로 나 후보(38.0%)에 9.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나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철수 바람"은 정치권의 성찰을 요구하는 바람이었지만, 경선이 이어지고 박원순 후보로 정해지면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나 의원의 단일화 비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소용 부채

를 극복해 달라는 분명한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사회가 (의견) 일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거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또 뱃길 확보를 위한 양화대교 교각 확장 공사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나 후보는 "양화대교 상류 측이 완성됐는데 하류 측을 그대로 두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므로 상류 측에 한 것처럼 마무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앞으로 한강 수중보 철거와 무상급식 등 각종 정책 이슈를 놓고 대립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는 또 이날 오후 사내 정계 전에서 열린 '희망의 나눔걷기대회' 행사에 참석, 자리를 함께했다. 박 후보가 전날 야권의 통합후보 경선에서 승리해 단일후보로 공식 선출된 뒤 첫 만남이었다.

나 후보는 박 후보에게 "축하한다. 수고 많이 하셨다"며 먼저 인사를 건



나경원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희망의 나눔걷기 대회'에서 출발해 앞서 풍선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넸고, 박 후보는 "서로 좋은 모습을 서울 시민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함께하기로 서로 이렇게 약속하죠"고 화답했고, 이에 박 후보는 "네, 러며 나 후보에게 손을 내밀어 약속했다. 이어 나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말 정색선거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당당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고, 이에 박 후보는 "네, 고맙습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풍을 등에 업은 박원순 후

# '安風' 향후 어디로 될까 정치권 주목

### "영향력 막강...대선·총선까지 뒤흔든다" 촉각 곤두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에서 나타난 안풍(안철수 바람)의 한배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안풍이 지지율 5%의 박원순 후보를 야권의 통합후보 자리에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안풍의 향배가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 판도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안풍의 위력에 대해 얼마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기존의 정당 정치에 영증을 내긴 민심이 정치색이 엷은 새로운 인물이나 나타나지 않아 대한 단거선 지지

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안풍을 등에 업은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은 5%에 20%까지 뛰어 올랐고, 그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박 후보는 4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7~18% 포인트 앞서며 줄곧 우위를 유지해 왔다. 특히, 민주당이 박영선 후보를 내세워 조직력을 총동원,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안풍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안풍이 과연 분선 무대에서도 계속 유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정치권은 안풍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영증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한 만큼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이라는 분석이 많다.

오히려 안풍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일궈내며 초대형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판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장,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그의 대권가능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 원장이 여전히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때가 되면 대선에 나올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손학규 대표직 전격 사의 배경

### 경선 실패, 인책론 막고 당 개혁 촉구

민주당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4일 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것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에 서 패배한 데 대해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사태에 이른데 대해 손대표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손 대표의 결심은 민주·민생·평화·수호의 60년 민주당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일단 대표직을 내려 놓고 박원순 후보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개인 손학규로서 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전날 밤 경선 패배 후 전략팀 회의와 4일 아침 특보단 소속 의원들과의 조찬에서 사퇴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김진표 원내대표, 정장선 사무총장과 이용섭 대변인 등 10여명의 의원들은 손 대표가 있는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사퇴를 강하게 만류했지만 손 대표는 사

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또 손 대표는 오전 11시40분께 최고위원회 의장을 찾아가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최고위원들은 "손 대표 단독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만류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자 최고위원들은 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손 대표가 주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택한 것은 경선 패배로 지도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내부 인책론이 불거지기 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사퇴한 초강수로 당의 변화와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 대표가 있는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사퇴를 강하게 만류했지만 손 대표는 사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원순 무소속 출마? 민주당 입당?

### 차 "6~7일까지 결정"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지 여부가 4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만능키인 민주당 간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가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심의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기 때문에

실질리 민주당에 입당하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박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면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며 박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 표심이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박 후보는 또 4일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 "6~7일 후보등록 전까지 고민을 끝내겠다"면서 "민주당이 개방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이념을 담아내는 계획이 발표되고 그 일정이 만들어지면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입당할만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이날 현재까지 분위기는 박 후보의 무소속 완주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 "나경원 돕겠다"

### 향후 서울시장 선거구도 미칠 영향 주목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자당의 나경원 후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복수의 관계자는 4일 "어제(3일) 김경전 사무총장이 박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박 전 대표가 '돕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화통화에서 당이 확정할 복지 당론이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 나 후보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서울시장 선거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나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펼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6일 확정되는 복지당론을 살펴보는 데 이어 당일 예정된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오는 13일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나 박 전 대표가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현대공인중개사

#### 토지 매매

- ▶지연복지(물류창고, 공장직할) 광산구비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지,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4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 ▶중주거지역 (병원, 시육,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직할) 화정동, 광산도로변, 지하철거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 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 13억

####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 15억8천만원

####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평주공형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 8억

◀대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판공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임대 전문

#### 학원·병원

#### 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 분양·임대가능

국민은행위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위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입주가 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건설팀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6천만 최저가1억9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4억8천만 최저가3억9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4억2천만 최저가2억9천만

####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223평 건평28평 감정가2억4천만 최저가1억7천만

####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4억5천만 최저가3억1천만

####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34평 건평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2억5천만(초정가)

#### 토지매매

- 무안군 해지면 천창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천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창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